
제4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17. 10. 27.

국 가 기 록 관 리 혁 신 T/F

제4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10. 27.(금), 10:00~12:30
-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8층)
- (참석인원) 위원장, 위원 및 지원팀 등 20여명
 - 안병우(위원장), 심정보, 최재희, 홍성덕, 설문원, 이원규, 현문수, 김창조, 정경희, 이상민, 이영남, 임진희, 전진한(위원) ※ 조영삼 위원 불참
- (회의내용) 분과별 추진현황 보고 및 안건 토의

□ 주요 논의 내용

< 회의록 공개 및 TF 게시판 운영 >

- (회의록 공개)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결정
- (TF 게시판 운영)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게시판 개설
 - TF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본인 인증절차 생략
 - 게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 필요시 과제에 반영

< 분과별 과제 관련 >

- (1분과) 「국가기록관리 폐단 혁신」 11개 사안에 대한 자료 검토 및 면담 방식 논의
 - 사전면담과 면담의 형태로 진행, 1분과위원 전원이 면담에 참여하며, 분과위원 1명이 피면담자 1명과 면담하는 방식은 지양(심정보)
 - 면담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1분과장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하고, 일정 성과가 나타나면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함(위원 동의함)

- **(2분과)**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4개 목표 9개 핵심과제 선정
 - 기간에 비해 과제 범위가 넓어 크게 방향을 제시하고 법제도적인 쟁점사항 중심으로 정리(설문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는 1분과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2분과 과제에 추가하여 상세히 설계하는 방향 논의 필요(최재희, 김형국)
- **(3분과)** 지정기록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토론회 개최 및 TF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합의 도출 예정(전진한)
 - 대통령 기록관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SNS의 기록화 대상 및 관리 방법론 논의 필요(설문원, 이상민, 정경희, 이승억)

< 기타 사항 >

- **(인력 충원)** 지원팀 인력 충원 요청
- **(현장 의견수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의견 청취 방안 마련
 - ※ 국가기록원에서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연찬회 개최 예정(11월 말 예상)

□ 향후 계획

- 제5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11.10.)

<회의 개최 및 총괄보고>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국 : 지원팀 지원인력 2명을 보강함. 지원팀 1분과 노은정 기록연구사, 지원팀 2분과 양은성 기록연구관이 충원되었음. 혁신 활동 공유 및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게시판을 신설하여 종전 회의록 뿐 아니라 TF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글쓰기 기능을 추가함

심성보 : 게시판이 개설된 걸 보니, 글쓰기 시 본인 인증을 안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김형국 :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 생략함. 오늘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심성보 : 홈페이지 인증절차가 복잡한데,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TF 게시판 개설을 잘 함

홍성덕 : 자유로운 의견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김형국 :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 과제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조치할 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 T/F 회의록 공개 등>

위원장 : 두 번째로 제3차 회의록 검토해서 확정하는 안건 다루겠음.
회의내용, 개요, 발언내용 등이 있음. 수정반영 등 확인하시고
회의록을 확정하도록 하겠음. 추가 수정사항이 없으면 회의
록은 지금 제시한 대로 확정하겠음

위원장 :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분과장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음.
모든 위원들의 말씀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또 3차 내용 중 비공개 내용이 있는
지 결정해 주시기 바람

이상민 : 제3차 회의록을 보니 이야기를 많이 했음

임진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회의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
로웠음. 오픈을 하는 게 기록관리 분야에 이해관계에 있거나,
전문연구자들 입장에서 상세한 논의 내용을 볼 수 있어 좋았음.
다만 사람 이름을 다 넣어야 할지는 검토 필요함

위원장 : 3차 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해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음

이원규 : 혹시 본인이 비공개로 요청한 경우나 위원장님이 비공개로 요
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고, 관례로 남아도 좋을 것 같음

김창조 : 지원팀에서 불특정 제3자 개인정보만 확인해서.. 그런 게 없
으면 공개 가능함.

위원장 : 위원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발
언자의 이름을 가릴 수도 있으니 부담스러우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상민 : 기본적으로 발언자의 이름을 밝히려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동의하시던가 반대하시던가 해야 할 것 같음. 한 두 분만
가리는 것도 이상함,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가기록원 관련은
국제회의 관련이 주된 이야기 인데, 제 이야기가 그동안 왜곡된
전달이 많아서 실명을 넣는 게 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됨

홍성덕 : 1분과 1과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제 발언에 대해 실명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그 안의 내용에서 불특정 제3자의 실명의 공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음

위원장 : 1분과 1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과제는 특별히 예민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음. 그럼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음. 그러면 분과별 추진과제 발표를 논의하도록 하겠음. 1분과부터 발표해주시기 바람

<분과별 추진상황 보고 : 1분과>

심성보 : 지난 주 10월 21일에 분과회의를 진행했음. 1분과 1과제 폐단 혁신과 관련해서는 11개 사안별로 자료를 검토하고 방향 등을 얘기했음. 대략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함. 11개 사안에 대해 사전면담과 면담의 형태로 면담함. 사전면담은 기록 없이 서로 협의를 하는 형태로 하고, 면담은 위원이 면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1분과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불가피하게 분과위원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가급적 분과위원 1명 대 피면담자 1명인 형태의 면담은 지양하고, 면담의 결과는 피면담자의 확인을 거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실제 다음 주부터 면담 진행예정임. 실제 피면담자가 녹음에 동의를 안 해줄 경우나 피면담자가 지원팀의 배석을 배제하도록 요청할 경우 등 녹음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속기사를 배석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함.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방식을 취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지원팀에서 속기사 관련 예산을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림. 1분과 1과제의 진행상황 보고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합의가 되거나, 또는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면담 대상자와 면담내용에 대해 TF 전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분과장이 보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보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구하겠음. 1분과 지원팀에서 자료제출, 일지작성을 해주고 있음. 자료제출 과정에서 업무관리시스템 미등록 기록도 제출받고 있음. 위원들은 분담된 내용에 대해 추진하고 있음. 1분과는 오늘 특별히 안전을 상정할 것은 없고 다음 주부터 면담을 실시하겠음. 전체회의에서 면담 대상자와 면담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허용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 궁금하시긴 하겠으나,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음

이상민 : 2, 3분과 위원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며 들을 권한도 없고 듣는 것도 부담스러움.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 것 같음

설문원 : 1분과 2,3과제는 2분과와 관련되므로 2분과와 공유해 주시기 바람

심성보 : 1분과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지원팀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원규 : 분과별로 제출된 자료가 다른 분과로는 자료 공유가 안 되는지...

심성보 : 1분과 1과제(폐단 혁신) 관련 자료는 현재 위원장님과 1분과 위원들만 공유하고 있음. 1분과 2과제, 3과제와 관련하여 2분과와 공유가 필요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음

이상민 : 1분과 보고와 관련하여 게시판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지...

이원규 : 등록이 안 된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이상민 : 청와대에도 유실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국가기록원에서도 미등록 기록이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그런 것이 증명된 것만으로도 파장이 크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기록의 증거성에 대하여는 기록학의 입장과 사법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음

<분과별 추진상황 보고 : 2분과>

위원장 : 그러면 1분과 마치고 2분과 보고 부탁함

설문원 : 2분과에서는 그간 과제별로 역할 분담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9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다시 4개의 목표로 그룹핑을 했으며 왜 이런 핵심과제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하기로 하였음. 과제선정 근거는 핵심과제를 뽑기 위한 것으로 4개 영역임,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는 아직도 매우 중요함, 다만, 추진전략의 전환이 필요함.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재설계 부분은 메타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배치하였음. 2005년 로드맵에서는 공개 확대라는 아젠다로 들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개 뿐 아니라, 자원의 공유, 지식자원화 측면을 강화해서 과제를 선정하였음. 마지막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정비인데 일선 연구사들의 관심이 높음. 지방기록관리, 헌법기관기록관리, 윤리문제 등을 배치하였음. 담당위원별로 과제 내용을 정리하였고 과제별로 쟁점사항을 정리하였음. 그런데 기간에 비해 주제와 과제 범위가 너무 넓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음. 크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음.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11월 중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오늘 분과회의를 열어 쟁점사항 논의를 진행하겠음

이상민 : 1차 전체회의 할 때 다른 분과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분과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측면이 있음. 다시 또 분과회의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분과장님에게 의견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의견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음 개별적으로 담당

위원에게 메일을 드렸으면 좋겠음. 그걸 협업체제로 했으면 좋겠음

설문원 : 그런데 의견공유를 하려면 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야 함. 특히 2분과 1번 과제의 공공기록의 범위 등은 3분과와 관련이 있고, 2분과 6번 과제의 국가기록원과의 역할 분담과 책임 관련은 1분과와도 관련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조정이 필요함

이원규 : 오늘 제출된 3분과 안건 자료는 의견 드리기 좋을 것 같음

이상민 : 공공기록관리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대통령기록물 지정 제도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됨

전진한 : 2분과 6과제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등과도 연계해야 함.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떨어짐. 시간제 계약직이 많음. 명시적인 현황조사와 개선점을 넣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김창조 : 기록물관리기관 조직의 영세성이 가장 큼, 1인 기록관 체계로 과장 1명, 실무직원 1명이 대부분임

전진한 : 제가 듣기로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채용하여 기록물 폐기만 하고 해고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강하게 제시 필요

김형국 : 2분과 6과제와 관련되므로 반영하겠음. 다만, 이상민 분과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사전에 정리가 안 되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국가기록관리 체계 설계에 따라 기록관이나 지방기록 관리기관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런 과제들은 가급적 협업해서 논의를 할 필요 있음

최재희 : 국가기록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1분과 2과제 기타공공 기관인데 앞으로 인력 부분에서도 기타공공기관이 중요함. 2분과에서는 과제가 빠져 있어 그 부분이 고민임

- 김형국 :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2분과 6과제에서 다루고 1분과에서는 방향성을 제시...
- 최재희 : 그 부분에 대해 세부 진행 전 방향논의가 필요함
- 위원장 : 2분과 6과제에서 소화 가능할지
- 김형국 : 기타 공공기관은 국가기록원에서 작업한 것이 있으므로 논의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음
- 설문원 : 2분과에서 정리해 본 후 별도 과제로 할지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보고드릴
- 임진희 : 명지대에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까지 보고서를 취합함. 용역에서는 기술적 측면의 전자기록관리 재설계를 다루고 있어 TF 과제와 포커스가 다를 수는 있으나 TF 과제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설문원 :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용역 중간결과를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해서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음
- 김형국 :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 법제팀과 2분과가 같이 논의하고 있음
- 전진한 : 국가기록원에서 지방기록관리 평가만 하고 중앙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박지태 : 그 부분은 평가가 아니고 감사영역인데, 지자체만 감사를 하는 것은 평가체계를 처음 도입할 때 그렇게하기로 결정하였음
- 김형국 :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감사는 행안부 지방합동감사에 국가기록원이 포함되어 합동으로 하고 있음.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평가로 진행하고 있음. 평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지도점검이나 실태조사 명목으로 재조사하거나 감사를 요청함
- 위원장 : 평가회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죠?
- 김형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2분과 마치고 3분과 보고 드리겠음

<분과별 추진상황 보고 : 3분과>

이상민 : 3분과는 지난 주 4차 회의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내용이 많아서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 할 것이 많음. 오랜만에 분과위원들이 다 참석하셔서 집중 토의를 했음. 토의결과 지정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끝장 토론을 진행할 것임. 방향성은 쟁점사항 안에 들어 있으니 한 번 보시고 전진한 위원이 초안을 곧 작성할 예정이니 의견을 보내주시면 집중 토론에 반영해서 같이 논의하겠음. 또 집중 토론에 참여를 원하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람. 분과 회의 참석자를 확장해서 할 것임. 다음 주 중에 진행하려고 함.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2분과 2과제와 상관성이 있음. 실제로 이것은 외국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디지털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것임.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임진희 위원이 맡고 계신데,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보존포맷과 상충되거나 방향이 달라지면 곤란하므로 상호 협의가 필요함

이상민 : 종이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자는 것임. 자세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음. 최종 보고 때 하나의 안으로 제출하고 국가기록원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라 봄. 중요한 게 대통령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에서 난맥상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쟁점적인 사안이 될 수가 있음. 이영남 위원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 관리 개선안 부분은 다음 번 전체회의 때 보고드릴 수 있음.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 전문성 보장은 1분과와 협력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모아서 중간보고를 만들 계획임. 이상 보고를 마침

- 위원장 : 지정보호제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셨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 이상민 : 지정보호제도 부분은 전진한 위원 담당인데, 담당 위원의 말씀 들겠음
- 전진한 : 최소한의 지정 원칙이라고 하는 조항이 대통령기록법에 들어가야 함. 대통령기록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대통령기록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설문원 : 제가 보기에는 합의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음. 기록 생산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도 있고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는데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 우리 보고서에 조정이 안 된 채로 나갈 것인지, 결론을 내릴 건지 궁금함
- 전진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는 대로 입장을 정하고 TF에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봄
- 이상민 : 대통령기록이 중요한데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함. 잘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은폐하는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앞으로 민주적 정부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생각하는 전제임. 그런데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잘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일정 시점에 재분류돼서 국민들이 국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임
- 김창조 : 사실 지정은 비밀로만 해야 함, 비밀이 아닌 기록을 숨기기 위해 지정을 남용함. 따라서 조문을 조금 바꾸거나, 법 해석을 바꿔서 제도 운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음
- 위원장 :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만든 법이 어떤 점에서 미비한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음. 사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기록관리에 대한 상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상민 :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자료가 많이 오지 않음. 지정기록 토론 할 때는 대통령기록관 담당자도 불러서 논의할 계획임

이원규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과의 관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의 관계 등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 1분과와도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이상민 : 여러 가지 안을 보낼 것이며 잠정적으로는 대통령기록을 행정부가 속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서 볼 때 안 맞고,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기관 성격 상 분리가 좋지 않은지 생각하고 있음

이원규 : 광화문 정책제안 중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지... 후속조치가 있는지...

김형국 : 국민제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정리중이고 정리해서 다음 번 전체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음

위원장 : 3분과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설문원 : 지난 번 회의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관련 논의가 있었음. 고려하고 있다면 아카이빙의 주체를 대통령비서실로 볼 것인지, 대통령기록관으로 볼 것인지 궁금함

임진희 : 서버 자체도 민간이 가지고 있고 서비스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직접 포착할 수 없는 시스템임. 오바마 대통령 계정도 SNS 업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포착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음. 업체의 협조가 필요함

설문원 : SNS 기록을 가져오는 시점이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상민 : 서울시 아카이브의 경우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모듈화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G클라우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국가기록원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 자율성이나 선택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현문수 :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정책결정이 필요함

임진희 : 클라우드에 얽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국가기록원과 완전히 달라서 기존의 제도와 어긋나는 듯한 불편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용기 있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검증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됨. 일정시기에는 제도를 뛰어넘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TF에서라도 그런 걸 용인할 수 있는 틈을 주자고 제안함

김형국 :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서울시 사업도 제도를 뛰어넘는 범위는 아님. 현재 법령상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이승억 : 일부 오픈소스 기반으로 했을 때 통합센터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충돌이 될 경우 못 들어감. 기록관리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함

김창조 : SNS 기록 등은 공·사가 불분명함. 지금 트위터 기록 등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대통령의 SNS 기록 등은 중요한 역사기록임

전진한 :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가보니 모 기자 분이 중국공안에 끌려갔는데 SNS에 중국 인권관련 내용을 쓰다가 잡혀갔음. 미국 CIA도 미국에 비판적인 SNS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 지난 정부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함

김형국 : SNS에는 개인정보가 많고 개인정보의 취합 자체가 불법이라 신중한 검토 필요

이승억 : 국민신문고 등 자신이 올린 내용을 지울 것을 요구하나 권익위에서는 지우지 못한다고 함. SNS 등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함

- 설문원 : 방통위에서 제정한 규정이 있음
- 김형국 : 웹상에 올린 것이나 국민들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도 회수를 원할 경우,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검토 필요함
- 정경희 : SNS는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음. 웹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아카이빙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권한 부여가 필요함
- 현문수 : 포괄적인 아카이빙은 불가하나 청와대 등 특정 계정에 관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음
- 김창조 : 옛날 공적분야는 법이 바로 개입을 하고, 사적분야는 자율에 맡기는데 SNS는 중간지대에 있음. 공·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율하기 애매함. 대통령의 계정은 공적영역으로 보고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SNS 문제도 2분과에서 다루고 있죠?
- 김창조 : 대통령기록에서 다룰 사항임
- 설문원 : SNS, 이메일 등을 기록의 범주에 넣을 경우 관리 대상을 규정할 상세한 제한사항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도 분쟁이 많음. 앞으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주화해서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어느 분과에서 하면 좋을까요?
- 김창조 : 미국에는 ‘공적인물 이론’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생활이 없음. 미국은 대통령의 일상을 100% 내보낼 수 있음. 보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주제 선정은 괜찮을 것 같음
- 최재희 : 1분과에서 말씀드리면 SNS를 기록물의 정의, 범위 측면에서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2분과에서 1번 과제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 설문원 : 2분과에서도 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음. 대통령 SNS처럼 대국민 소통용 SNS가 있고, 공공기관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SNS가 있음. 장기적 과제로 보아야 함

- 최재희 : 공적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와 관련하여, 1분과에서 보니 미등록 기록들이 많았는데, 법령에는 보고 직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음. 개선이 필요함
- 김창조 : 미등록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경우와 민감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음
- 이상민 : 3분과에서 모든 SNS를 다 수집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 3분과의 방향은 SNS를 선별해서 수집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임
- 이승억 : SNS는 기존의 기록관리와는 다른 방식임,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국가시설이 아닌 곳에서 국가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익숙해져야 SNS관리 방법론을 만들 수 있음
- 위원장 : SNS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기록이나, 다뤄야 할 문제가 많음. 1, 2, 3분과 추진현황 보고를 종료하겠음

<기타 사항>

- 위원장 : 지금 결정사항이 하나 있음. TF에서 기록관리 현장의 연구사 의견 청취를 위한 일정을 잡아야 함
- 김형국 : 광범위하게 연구사 의견도 수렴하고,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대규모 연찬회 준비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TF도 참여를 할 생각인데요, 11.23(목)~24(금)과 11.30(목)~12.1(금) 2개의 안중에 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대상인원은 600명 정도 예정이며, 1박2일로 할 생각임
- 위원장 : 11월 30일로 일단 정하도록 하겠음
- 전진한 : 장소는 어딘지
- 김형국 : 일단 전국단위에서 모이기 쉬운 곳으로 하겠음
- 심성보 : TF가 주관하는 행사와 국가기록원 행사를 분리했으면 좋겠음. 애초부터 의견청취가 목표이므로 조금은 다르게 가야 할 것 같음

김형국 : 공통적인 행사가 1/3이고 TF 행사가 2/3정도로 추진 예정임.
결정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심성보 : 한 가지만 공지하겠습니다. 11/3(금)~4(토) 전국기록인대회인데,
금요일 오후에 개회사, 축사 다음에 TF 관련 발표가 있어
공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또 세부과제에 대해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함

위원장 : 전국기록인대회에 가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입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